美 불교,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는

예엘 쉬, "화해 · 모금 · 명상 등에 관심 가져야"

'Huffington Post' 지에 기고 … '타 종교 비교해 모금 가장 취약'

미국에서 불교는 더 이상 '먼 나라 종교'가 아니다. 명상에 쏟아지는 관심 같지는 않지만, '이민자 중심 불교'에서 '미국인 중심 불교'로 탈바꿈하고 있다는 점만큼은 확실하다. 그렇다면 미국 불교계가 이런 상황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해야 할까.

'Huffington Post'지는 예엘 쉬(Yael Shy) 글로벌종교생활(Global Spiritual Life) 이사의 글을 게재, "미국 불교계는 사회 문제에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해소하려는 대화의 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또한 사회 구성원과의 직접적이고 역동적인 관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르면 예일 이사는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미국 불교계의 관심에 힘을 더하는 한편 다른 사회 문제를 비롯해 '명상' '모금' 등의 분야에서의 노력을 요구했다.

"미국에서 퍼거슨, 스태튼 섬, 볼티모어 하면 떠올리는 게 '인종차별 사건'으로 지금까지도 적잖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목한 예엘 이사는 "다행스럽게도 미국 불교계는 '인종차별 문제'를 간과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 불교계는 미국의 그릇된 역사관과 제도에 뿌리를 둔 '특권적 우월주의'와 '관성적 인종차별'에 제동을 걸며 적극적인 토론의 장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Library Journal'지가 선정한 '가장 영향력 있는 아프리카계 미국인 불자'로 꼽힌 교토 윌리엄(Kyodo William) 법사는 현재 다양한 인종의 사람들을 초청, '다름'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2002년 '흑인으로 산다는 것(Being Black)'(2002)을 출간해 베스트셀러 작가 반열에 오른 교토 법사의 강연에는 항상 청중이 가득하다.

"우리는 항상 진정성을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바로 보아야 한다"고 매 강연마다 강조한 교토 법사는 "명상은 그것을 방해하는 장벽이나 장애물을 치우는 과정"이라며 "이를 통해 "인종 차별이라는 구태를 벗고, 이와 맞서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밖에도 브루클린선센터(Brooklyn Zen Center), 뉴욕명상센터(New York Insight Meditation Center)를 비롯해 많은 불교공동체가 '인종차별 않기', '정의로운 행동' 등을 주제로 모임을 속속 개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미국에서 불교의 사회적 위상은 이러한 움직임을 통해 강화되고 있다"고 강조한 예일 이사는 "불교는 '다른 사람이 자유로울 때 비로소 내 자신도 자유롭다'는 상호공존의 가치로 권력이나 특권에 함몰되어 있는 미국인의 생각을 일깨우고 있다"며 "이는 우리가 망상, 탐욕, 증오, 고통에서 벗어나고, 마음의 눈을 뜨고 부조리에 용기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글로벌종교생활(Global Spiritual Life) 예엘 쉬(Yael Shy) 이사는 'Huffington Post'를 통해 "미국 불교계는 사회 문제에 적극 관심을 가져야 하고, 그것을 해소하려는 대화의 장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명상 · 모금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진은 뉴욕명상센터에서 명상 중인 모습

그러나 '명상'과 '모금'과 관련해서는 쓴 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미국 불교계의 눈에 띄는 성과는 단연 명상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명상 관련 글을 읽지 않고 한 주를 보내기 힘들다"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다. 명상 관련 글이며 광고가 매스미디어의 수많은 코너 중 어김이 한자리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명상이 이제 '주류 문화'로 대접받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 여파가 심상치 않다. 불교계 내부에서 '명상이 세속적이거나 상업적인 형태로 사람들에게 다가서고 있다'고 비판하는 측과 '그렇지 않다'고 옹호하는 측이 갑론을박하고 있다. '비판하는 측'은 대부분 독실한 불교도로 그 불만 역시 만만치 않다. 그들은 "단순히 소비자로서 명상을 시작한 사람들의 변덕과 취향에 맞춰 명상을 재단하고 가공하는 일이 빈번하다"며 "이는 명상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반면 '옹호하는 측'의 입장은 다르다. 그 중심에 ABC 방송사의 '나이트라인(Nightline)' 진행자인 댄 해리스(Dan Harris) 앵커가 있다. 그는 "명상은 치유를 향한 차세대 혁명"이라고 말하고 "명상 지도자들은 이 혁명을 더욱 키우기 위해 불교를 대중의 눈높이로 맞추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이에 대해 예엘 이사는 "명상의 상업화가 불교의 세속화를 부추길 수는 있지만, 그 긍정적인 면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상업화나 세속화의 방향을 가다듬고 일명 '캐주얼 명상'이라는 사람들이 쉽게 다가설 수 있는 명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명상 지도자들이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금' 역시 미국 불교계에서 만만한 문제가 아니다. 예엘 이사는 "미국 불교계 재정 자립도는 아직까지 다른 종교와 비교해 가장 취약한 걸음마 단계에 머물러 있다"며 "이는 불교공동체의 재정이 미약하다는 뜻이기도 하고, 불교적 가치를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모금 관련 자료를 분석해보면, 기독교 관련 기금은 총 3,371개, 유대교 관련 기금은 3,852개로 추산된 반면 불교 관련 기금은 39개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미국 불교계가 재정 마련을 위해 전통적 '보시'가 아닌 새로운 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불교가 태국이나 일본처럼 수백여 년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면 '보시'로도 충분한 재정을 마련할 수 있겠지만, 미국에서의 상황은 다르다.

이에 대해 예엘 이사는 린 트위스트(Lynn Twist, Soul of Money Institute 대표) 법사의 '모금 패러다임의 변화' 주장에 귀를 기울인다. 이 주장에 따르면 '기부란 사회 재원의 재분배'이다.

"관대와 기부는 '완전한 마음'의 한 형태"라고 주목한 예일 이사는 "불교계의 모금 전략이 보다 미국적인 모습을 띨 때, 미국 불교계는 미래를 준비하는 힘을 키우고 또 깊은 가치에 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슈안레이 스님, 中 · 印 친교 기원

모디 총리에게 그림 2점 선물

중국 불교계가 중국과 인도 양국의 친교 다지기에 나섰다.

'Mail Online'지는 "중국 산시성의 슈안레이(Xuanlei) 스님이 지난 14일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한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인도 총리에게 양국의 친교를 기원하는 그림 2장을 선물했다"고 보도했다.

"중국에서 출가했고, 인도에서 공부했다"고 자신을 소개한 슈안레이 스님은 "두 나라의 불교는 '밀교'를 정점으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며 "밀교 수행자로서 중국과 인도의 친교에 한 몫을 담당하고 싶었다"고 모디 총리에게 그림을 선물한 이유를 밝혔다.

'Mail Online'지에 따르면 슈안레이 스님이 모디 총리의 방중 두 달 전부터 제자와 함께 그린 그림 2점 가운데 1점은 용(중국 상징)과 코끼리(인도 상징)의 만남이라는 모티브를 배경으로 시진핑 주석과 모디 총리가 다정히 악수하는 모습을 담았다. 나머지 1점은 모디 총리가 중국 첫 방문지로 시진핑 주석의 고향 산시성을 선택한 것에 대한 답례로 '소나무와 대나무를 배경으로 서 있는 모디 총리'의 초상을 담았다.

중국 산시성의 슈안레이 스님은 지난 14일 중국을 방문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에게 양국의 친교를 기원하는 그림 2장을 선물했다.

"용과 코끼리를 배경으로 삼은 그림은 중국과 인도의 '영원한 동맹'을 기원하는 것"이라는 슈안레이 스님은 "밀교 수행자로서 인도에서 보다 깊이 밀교를 연구하겠다는 서원을 가지고 있다"며 "양국의 관계가 더욱 친밀해진다면, 노승의 서원대로 양국의 밀교학자들이 모여 연구하고 토론하는 기회가 많지 않겠냐"고 말했다.

한편 'Economist'지는 "중국과 인도는 경제를 중심으로 관계를 확대했지만, 국경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며 "모디 총리의 방중으로 양국이 껄끄러운 영토 분야에서도 관계에 진전을 볼 것"이라고 보도했다.

현재 인도와 중국은 인도 카슈미르(Kashmir) 주에서 국경 분쟁을 벌이고 있다. 지난해 9월 시진핑 주석이 인도를 방문했을 때 중국 병사들이 인도 국경을 넘어 양국 군대 1,000여명이 대치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불교, 사회적 역할 증대 나서야 할때"

5월 14일 백악관서 불교계 컨퍼런스 열려

불교에 대한 서양의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불교 지도자 컨퍼런스를 열어 눈길을 끈다.

5월 14일 미국 정부는 석가탄신일을 맞아 불교계 주요 지도자들을 초청, '광장에서의 목소리, 전 세계의 행동을 이끈다(Voices in the Square-Action in the World)' 주제로 불교 컨퍼런스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미국 소승불교 비구 보디(Bhikkhu Bodhi) 스님을 비롯한 한국 · 일본 · 중국 · 티벳 · 캄보디아 등 약 125명의 불교계 지도자들이 참석했다.

개회식은 조지 워싱턴 대학교에서 열렸으며, 본격 회담은 백악관으로 이동해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기후변화 · 인종 간 정의 · 평화 건설을 위한 불교계 역할에 대해 논의했다. 예일대 환경학 부교수 마리 튜커(Mary Evelyn Tucker)와 비구 보디는 '기후 변화에 대한 네 가지 해법'을 제시했으며, 엔젤 쿄도 윌리엄스 목사는 "인류가 타락하고 있는 것에 대한 간과가 지구를 망치고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잭 콘필드(Jack Kornfield)는 마무리 연설에서 불교의 소극적 태도를 지적했다. 그는 "불교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회적 역사를 해왔다. 오늘날 우리는 종교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그것을 논의해야 한다"며 "이 컨퍼런스를 시작으로 불교가 사회적으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불교 네트워크 단체 Soka Gakai International 홍보 이사 윌리엄 아이켄(William Aiken)은 'Lion's Roar'을 통해 "나는 미국 내에서 불교의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한다"며 "이제는 불교계가 사회다방면에서 역할을 증대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어 그는 "이번 컨퍼런스는 시작에 불과하다"며 "백악관에서 열린 이번 행사를 기점으로 다음 해에는 미국 의회를 통해 개최될 것"이라고 밝혔다고 불교 잡지 'tricycle'은 보도했다.

한편 'Tricycle'은 이날 행사를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라며 "미국 내 불교계의 역량을 확대할 최고의 시도였다. 전체적으로 미국 불자들을 정확히 대변했다"고 평가했다.

박아름 기자

泰 역동적인 '부처님 맞이'

문신 · 로켓으로… 몸 사리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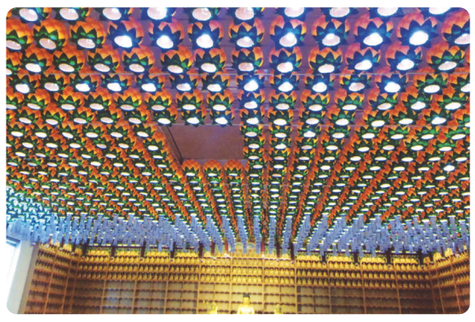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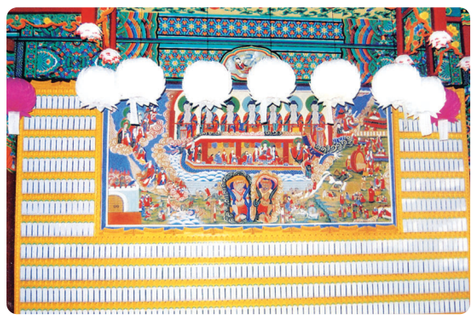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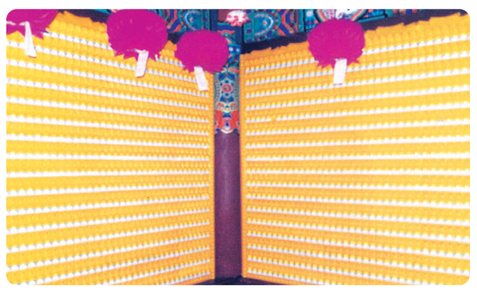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일을 맞이하는 태국 불자들의 모습은 '몸 사리지 않는 역동' 그 자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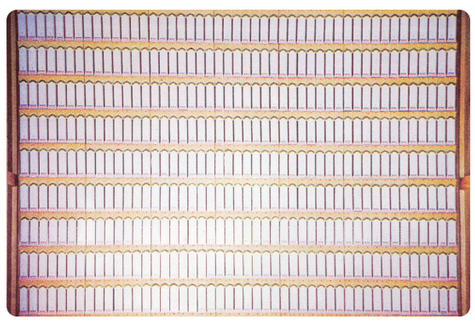
'CNN'은 태국의 부처님오신날 '위삭데이(Vesak Day)'에 앞서 열리는 'Sak Yant(일명 문신축제)'를 소개하고 "축제가 시작되면 사찰마다 불교 관련 문신을 한 사람이 모인다"며 "참가자들은 자신의 몸에 새겨진 동물을 흉내 내며 축제를 즐긴다"고 전했다. 축제 기간 중 새로운 문신을 새기고자 하는 사람들은 부처님께 꽃을 올리고 시주를 하면 문신 시술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CNN'은 'Bun Bung Fai(일명 로켓축제)'도 소개했다. 위삭데이 직전에 열리는 이 축제는 건기(11월부터 4월까지)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기원한다. 'CNN'에 따르면, 사찰 주변에 진행되는 이 축제에는 마을 사람들의 다양한 공연 무대가 펼쳐진다. 축제의 백미는 마지막 날에 열리는 '홈-메이드 로켓 발사'이다. 대나무에 화약을 채워 만든 로켓을 하늘로 쏘아 올리는 이 행사는 '단비를 기원하는 마음을 하늘에 전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오종욱 편집위원

사찰불사! 정우불교예술원이 함께합니다



제 월

제 월

월


불 불 불